

복지사각지대 눈 밝히다

어르신 고독사 예방 위해 안부 요구르트 배달서비스 등 남원시 취약계층 대상 역점 추진 돌봄사업 '큰 호응' 뇌출혈로 쓰러진 어르신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 구해

남원시가 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 예방과 홀로가구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감지센서 설치, 따릉 문안 확인, 안부 요구르트 배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활동감지센서 서비스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즉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관리·대응하는 사업으로 홀로 생활하는 50가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따릉 문안 서비스는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가 단절돼 안전관리가 필요한 가구 435명을 대상으로 주2회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안부 요구르트 배달은 7개 동 지역에 221가구를 선정해 업체와 계약을 통해 주 3회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건강도 챙기고 있으며, 지난 2월 21일 금동 독거노인 관리요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것으로, 이날 방문한 황모씨(75)집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즉각 감하고, 대상자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 119 구급대와 경찰에 알려 방문을 여는 순간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해,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이송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강원구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가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능성 게임 콘텐츠 구축

순창군, 문화콘텐츠진흥원 공모 선정
4억원 투입 내년 초 관광지 내 사전운영

순창군이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발효데마파크 성공가능성을 밝게 했다.

군은 이번사업을 통해 2021년 완공 예정인 월드푸드사이언스관 내 전시할 콘텐츠를 사전 제작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이면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관내 대표 관광지에 우선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콘텐츠는 오락과 교육, 체험과 훈련 등을 모두 아우르는 MR(Mixed Reality, 혼합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순창 전통요리와 글로벌 요리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다.

(주)기어즈소프트가 주관하고 (주)노바캡이 참여해 진행될 이번 사업에는 국비 2억원을 포함해 총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그동안 발효데마파크 내 월드푸드사이언스관에 전시할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순창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이색적인 체험거리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에 군은 현재 관광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MR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 콘텐츠는 실제 요리하는 과정을 적용하여 1인 또는 다수가 함께 재료를 썰고 데치고 볶는 과정을 가상으로 진행하는 등 두드러진



순창군이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VR체험.

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이색적인 체험거리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에 군은 현재 관광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MR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 콘텐츠는 실제 요리하는 과정을 적용하여 1인 또는 다수가 함께 재료를 썰고 데치고 볶는 과정을 가상으로 진행하는 등 두드러진

터치와 같은 인터랙션을 중요시 한다.

기존의 정적인 전시형 콘텐츠에서 탈피해 생동감 넘치는 요리 만들기 체험으로, 관광객들은 순창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의 요리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논 타 작물 재배 목표 달성 총력

남원시는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의 식량자원의 자급을 제고를 위하여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논 타 작물 재배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남원시는 쌀 생산능가, 축산능가, 쌀 전업농, 품목별 작목반, 농민회, 한농

연 등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재배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이며, 벼 재배기간 타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가능하고, 품목별 ha당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원, 두류 325만원, 풋거름 등 일반작물 340만원,

올해 신규지원 대상품목인 휴경논의 경우에도 280만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쌀생산조정단 협의회와 식량산업 협의회, 쌀전업농 연합회 간담회 및 1만여농가에 대한 개별 문자, 전년도 벼 재배면적 3ha이상 740여 농가에 대한 개별 서한문 발송 등 사업 동참에 전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부대에 '독서향기' 가득

35사단 총경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파견 독서프로그램 지원

임실군 35사단에 독서향기로 가득하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역과 상생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형성을 위하여 제35사단에 위치한 총경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총경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1명)를 파견하여 진중문고를 비롯한 여러 도서를 분류한 따라별 작업을 통해 장병들에게 보다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장병 독서리더 과정'을 지원하여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독서생활을 습관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군 도서관 관계자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정보소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장병들이 평등한 지식 정보 접근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전문사서 지원을 통해 책과 함께하는 활기찬 병영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독서향기와 정보소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장병들이 평등한 지식 정보 접근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전문사서 지원을 통해 책과 함께하는 활기찬 병영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매아리



임실군씨름연합회

도민체전 종합 우승

임실군씨름연합회(회장 조익형)가 2019년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 3연패(連覇)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임실군 씨름팀은 도민체전에서 남녀혼합 일반부 7명(남5, 여2)이 출전해 이 중 6명이 순위에 입상하는 기염을 토해 종합점수 64.5로 우승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인 임실군이 전문선수팀이 있는 타 지역 선수들을 제치고 2015년과 2016년에 잇따라 우승한 데 이어 2017년에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날 임실군청 체육청소년과 김종민과장, 농촌활력과 양진수 팀장 등은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씨름장을 찾아 예선부터 전 일정을 관전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공직자들은 함께하는 마음으로 씨름 연합회원들과 함성을 같이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임실군씨름연합회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8월 전북씨름왕선발대회, 10월 제3회 임실군수배치즈장사선발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 친환경열차 설치 기본계획 용역 착수

남원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전북도, 남원시, 남원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되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용역에서는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법적기준, 차량·궤도시스템 선정,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교통수요 예측, 편익 및 비용산정,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대체 이동수단 검토 등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운용법에 의한 궤도사업 승인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전북도 관계자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해 도비를 지원한 만큼 향후 남원시와 협조해 국토부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그동안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었으나 국토부 정책연구와 함께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서 전기열차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지훈련단 유치 경기 활성화

순창군이 전국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본 데 이어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뛰어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정구나 야구, 배드민턴, 장애인사이클 선수단 등 88개팀에 총 인원 5,000여 명이 순창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직·간접 효과는 7억으로 산출된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스포츠 대회 유치를 사활을 걸면서 경쟁이 치열해져자 대회 유치가 예전만큼 순탄치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순창군은 자치단체별 경쟁이 치열한 대회 유치보다는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바로 전지훈련단 유치다.

이처럼 군이 전지훈련에 적극 나서면서 전지훈련단 유치가 대회유치만큼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전국대회 유치보다 군이 부담해야할 비용도 적어 실제 효율성면에서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 경기 활성화면에서 효과를 누리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